

■ 정부시책 및 동향 ■

산업자원부, 韓·日 상호認定협정 2차 실무협의를

한·일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2차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설명회가 일본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한 우리측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국제표준정책과 JIS, 전기용품, 통신기기, 압력용기, 기계류 분야 표준 및 인증제도가 소개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향후 MRA 추진과 관련된 공식협상 개시시점, 협상대상품목, 상호인정범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MRA가 양국의 표준제도를 상호인정함으로써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시험 및 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이라

고 말하고 일본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수입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MRA 개념과 한일간 추진 현황〉

자국의 제품, 공정, 서비스가 상대국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상대국이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협정.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시 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월 도쿄에서 제1차 설명회 및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MRA는 중복 시험 및 인증에 따르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해외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외에도 캐나다, EU와도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국내 무역·경제관련 통계 인터넷 사이트

수출입 거래를 하다보면 무역관련 통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과거엔 통계하나 구하려면 도서관을 뒤지는 등 별도의 수고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관세청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의 KTNET, 무역협회의 KOTIS 등에서 무역관련 전문통계가 공급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 가운데 수출입 관

런 통계는 물론 산업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산업자원부 사이트중 '산업자원통계'(http://www.mocio.go.kr/산업자원통계/통계목록.htm)코너가 그것이다. 산업자원부의 주요통계 및 관련자료를 분기별로 종합·정리한 것으로 향후 월단위로 통계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자원통계'는 △수출입실적, 설비투자동향, 통화 금리 환율 증가 등의 기본통계 △지역별 품목별 수출입실적, 한국의 해외투자 등

의 무역투자·국제협력 △자원·에너지 △산업·기술정책 △섬유, 신발,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산업별 동향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통계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자료실-국가별 정보를 클릭하면 주요 50개국의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교역·투자·산업협력 등), 통상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선진국과 기술교류 확대기대

우리나라가 '국제 IMS(지능형 생산시스템) 프로그램' 정회원국으로 가입, 첨단 기술 습득,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호주 타스마니아에서 개최된 국제 IMS 프로그램 국제운영위원회 제10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국 가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EU(유럽연합)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1개국으로 구성, 발족된 '국제 IMS 프로그램'은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기술이 통합된 차세대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가입을 통해 발언권

및 의결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차세대생산시스템 연구개발 및 표준블럭 형성 과정에서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국내 관련기업,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화에 필요한 생산기법 및 경영기업 습득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용어

〈IMS란〉

21세기 제조환경이 지능화, 고품위화, 통합화, 쾌적화, 국제화되는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간과 기계,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기술이 통합된 차세대생산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수주, 개발, 생산, 물류, 경영 등 생산시스템의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가장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70년대 유연생산시스템(FMS)은 설비집약적 산업환경에서 제조 공정의 자동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80년대 컴퓨

터통합생산시스템(CIM)은 부분적 자동화를 통합, 수주에서 출하까지 종합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IMS는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에 적합한 지식 집약적 시스템으로 첨단기술습득, 자원효율화, 제품주기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자부·전자부품研, 정보통신용 소형모터 '블터'

컴퓨터와 진동모터를 채용한 이동전화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정보통신용 소형정밀모터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전 및 산업용 모터는 세탁기와 공작기계 등의 생산감소로 '97년에 비해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한 「소형정밀모터산업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용 소형정밀모터 수요는 '97년 1억6300만개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배나 늘어난 4억8900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정보통신용 소형정밀모터 중 FDD용 모터의 경우 '97년 1억3600만개에서 '98년 4억4200만개로 324% 증가했으며 이동전화용 모터는 '97년 800만개에서 '98년 1700만개로 2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전용 모터 수요는 '97년 3200만개에서 '98년 2900만개로 8% 감소했으며 감소원인

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생산감소와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마사지기 등 소형가전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생산감소로 나타났다.

반면 에어컨 소형모터의 수요는 환경 및 건강제품으로 인식되면서 '97년 150만개에서 '98년 180만개로 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기계, 범용선반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형정밀모터의 경우 '97년 90만개에서 '98년 50만개로 36% 감소했으며 감소원인은 IMF 영향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밀링기, 범용선반,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의 생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용 소형정밀모터의 경우도 수요가 '97년 200만개에서 '98년 190만개로 3.7% 감소했다.

한편 국내 소형모터 생산업체 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매출은 지난 '97년 5282억원에서 '98년 22% 늘어난 647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은 33개 업체 80건 가운데 DC모터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AC모터 2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가전 32.7%, 정보기기분야 22.8%, 자동차 1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이 기술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인력양성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국제적 소형모터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정보기기의 핵심 구동모터 개발과 요서기술 개발투자를 강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생산체제의 특성화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필요정보 총집합

중소기업청의 홈페이지(www.smba.go.kr)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지원 정보부터 경영관련 정보가 분야별로 다양하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으며 각 메뉴가 독립적으로 각각 하나의 사이트로 운영돼도 충분할 만큼 풍부한 정보의 양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짜임새 있게 구성돼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게 한 점과 빠른 업데이트는 중기청 홈페이지의 강점으로 꼽을 만하다. 중소기업청 사이트의 특징은 초기화면의 중앙부분에서 제공되는 메인메뉴 이외에 각 분야별 정보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분야별 정보망에는 벤처넷과 테크노넷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데이터베이스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몇몇 중요 정보망

의 경우에는 개별 도메인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 분야별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사이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별도의 사이트로 운영되는 분야별 홈페이지. 방대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 구성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해 분야별 기업들이 필요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국내조달정보 방대

▲ 국내의 조달정보망=국내의 조달정보망은 각 정부부처의 조달 관련 내역을 온라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국내 '구매입찰정보'에서는 각 정부기관의 입찰 낙찰정보를 다양한 질의사항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이 검색시스템은 기관명, 입찰종류, 지역, 입찰일자, 등록기한, 품명 등으로 제한해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품명이나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포괄적이고 방대한 입찰정보를 구할 수 있다. 검색해 볼 수 있는 정보는 입찰·낙찰정보, 구매입찰정보, 공사·용역 입찰정보, 공사낙찰정보 등이 있다. 해외 입찰정보코너에도 다양한 검색시스템을 지원하지만 보유한 데이터가 매우 적다. 이 밖에 입찰 참가방법, 기업체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다.

기업정보 등 3부분 제공

▲ 벤처넷=벤처기업과 캐피탈을 이어주는 벤처넷은 'venture.smba.go.kr'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벤처투자마트, 벤처기업정보, 벤처캐피탈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벤처투자마트는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공동으로 제공하는 페이지로 벤처기업이 직접 제안서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 곳에서는 벤처기업 투자정보, 벤처투자조합 모집 공고 등의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벤처기업검색은 기업체를 지역, 업종, 업체명, 설립일자, 확인일자, 대표자출신, 대표자출생년도, 대표자성별 등 매우 상세한 분야로 한정해 검색할 수 있다. 8개의 검색종류 중

한가지만 선택해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벤처기업통계에는 업종별 벤처기업현황,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등의 벤처기업관련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다. 벤처캐피탈정보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황을 제공하는데 이 코너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연락처는 물론 홈페이지를 연결해 캐피탈을 찾는 벤처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정보에서는 이밖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신기술금융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벤처넷에서는 또한 실리콘밸리뉴스 한국지사와 협약을 맺어 원래 유료로 제공되는 실리콘밸리 뉴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의 최신 소식 및 첨단벤처산업계의 최신 동향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

기술관련정보들의 보고

▲ 테크노넷=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에서 제공하는 테크노넷(techno.smba.go.kr)은 각종 기술관련 정보들의 보고.

초기화면의 '기술지원 새소식'에서는 '99년 2차 지정 유망기술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의 명단을 제공하는 등 각종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해 놓았다. 기술개발 지원 코너에서는 공공기관의 '9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정보를 부서별로 정리해 제공한다. 기술거래 알선코너에서는 기술거래알선

제도, 기술 판매 및 구입 기술거래 유관기관, 이론헤망기술, 중소기업기술지원기관, 중소기업 기술거래소 등의 하위메뉴를 두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넷에서는 이밖에 기업간 기술협력, 기술인력알선지원, 시험설비이용, 기술지원, 유관기관 안내 등의 메뉴를 제공한다.

다양하게 등록·검색

▲ 유휴설비 알선센터=유휴설비 알선센터는 기업들의 유휴설비를 온라인 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유휴설비 온라인센터로 등록과 검색이 다양하다.

기업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유휴설비를 설비 종류, 등록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설비명/제목, 담당자, 설비 소개' 등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로도 검색할 수 있다. 검색조건을 입력하지 않은 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목록이 출력된다. 출력내용에는 설비와 제작 국가 제작 연도 등의 내용이 자세히 제공되며 매각단가도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다.

외환증장기 전망정보

▲ 중기청 외환정보망=이 사이트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주)델톤과 서울포레스에서 제공하는 외환관련 정보사이트. 이곳에서는 외환관련 차트와 증장기전망 등을 얻을 수 있다. 달러/엔 차트정보에는 그래프 처리된 환율의 동향을 볼 수 있고 증장기 전망에는 서울포레스의 유로화 전망, 골드만삭스 원화 강

세 전망, 모건스탠리 원화 강제 전망 등이 제공된다. 초기화면에는 최근 몇 달간의 환율 변동 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기 타

중소기업청 사이트의 첫화면은 중기청소개, 보도자료, 정책안내, 중소기업 정보검색, Y2K정보, 안내센터, 사이버 마켓몰, 온라인 민원실, 자료실, 전자우편 시스템과 추천사이트의 10가지 메인메뉴로 이루어져 있다.

▲ 기업체정보=중소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코너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를 검색어를 입력해 찾아보거나, 기간, 분류별로도 찾아볼 수 있다.

▲ 정책안내=중기청 사이트의 정책안내 사이트에는 부서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등록되어 있다. 최근 자료로는 주간자금동향, 창업투자회사 명단, 정책자금 지원제도 등이 제공된다.

▲ Y2K 정보안내센터=2000년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는 꼭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하는 코너. 이 코너에서는 중소기업에서 Y2K를 점검하는 방법을 컴퓨터 제조업체별로 제시해 놓았으며 Y2K해결 사례 등의 정보를 제시해 기업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자료실에서는 Y2K비상지원 컨설팅 신청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오피스제품에서의 Y2K 점검상황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민원실=중소기업청의 온라인 민원실에서는 청장과의 대화, 토론광장, 부정비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국가간 '異業種교류' 활발

최근 국가간 이업종 교류그룹의 연계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나누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3~14일 대만 카우슝(高雄)시에서는 '한·대만 국제 이업종 교류회'가 개최됐으며, 지난 24~26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는 '한·일 이업종 교류 심포지움'이 개최 되었다.

지난번 개최된 한·대만 국제 이업종 교류회에서는 전국 이업종 교류 연합회장을 비롯한 국내 이업종 관계자들과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처장 및 중소기업 과업교류협회장 등이 참가, 한·대만간 국제 심포지움의 정기개최와 양국 이업종 회원사간 경영·기술교류 및 투자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후쿠오카현에서 열리는 '한·일 이업종 교류 심포지움'은 지난 '91년 처음 교류를 실시한 이래 매년 열리는 행사로써 한국 측에서는 전국이업종교류연합회장단 등 37명과 일본측의 후쿠오카현 이업종 협의회 관계자가 참가, 양국간 기술교류 협력증진 및 투자촉진 등을 논의 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전국이업종교류연합회와 일본의 (재)전국 이업종교류재단 관계자들이 만나 한·일 이업종간 정기교류 및 상호협력 관계 구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러한 국제간 이업종 교류활동이 해외 기술교류 및 투자촉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업종 교류를 하고 있는 한·일·대만의 중소기업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의 국제 이업종 교류활동을 정례화하는 한편 국내 이업종 행사에 해외 이업종 관계자를 초청해 기술교류 및 투자 협력증진 등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업종 교류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일본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3103개 그룹에 12만640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이업종 교류를 시작해 현재 약 850여 개의 기업만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이업종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획예산처, KS기준 국제규격 상향 추진

정부는 산업표준의 세계통일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과 함께 KS규격을 국제규격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KS규격이 대부분 일본규격(JIS)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쳐 양적, 질적으로 세계수준에 크게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KS규격을 국제규격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115억원의 정부예산을 내년엔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만193종의 KS 규

격을 매년 2천종씩 향후 5년에 걸쳐 개선·보완 등 점검작업을 거쳐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인터넷상의 무역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말 4만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이버실크로드 수출박람회를 개최한다. 사이버실크로드에서는 국내 및 해외업체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수출상담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농산물, 게임·음반 등 문화산업의 수출지원도 확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 벤처창업지원 '민관기업' 추진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0억원씩 공동으로 투자한 자본금 1천억원 규모의 민관 합작기업이 탄생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가의 발굴과 창업지위를 전담할 '다산벤처(주)'를 설립하고, 창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이나 예비 벤처사업가를 이 회사에 흡수해 집중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 회사 설립을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에서 5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회사설

립에 공동 참여할 국내외 민간기업 물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설립되는 다산벤처는 벤처기업가를 회사 소속으로 두고 이들에게 자금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제품의 판로를 공동개척 하되, 벤처기업가의 독립적인 경영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소사장제'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초 발족하게 될 다산벤처는 특히 신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영·기술지도 및 신기술과 지적재산권의 중개

등을 회사설립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한국벤처펀드(KBF)가 있었으나, 이 기금은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하지 못해 벤처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다산벤처는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공공기금적 성격과 민간기업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집단화·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이같은 벤처창업 전담기업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확정,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KOTRA, “한국 中企제품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문제”

해외시장에서 판매되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이어들은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KOTRA가 주요 수출시장 45개국 2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시장에서 판매되는 우리상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이어들은 가격경쟁력(23.2%)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납기일 준수(18.6%)나 철저한 애프터서비스(18.0%)의 필요성도 해외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외국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15.0%), 시장특성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의 부재(13.0%),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12.6%)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상품 수입시 전반적으로 품질요소 보다는 가격요소를 우선시 여기고 있고 주로 납기지연이나 사후관리(A/S) 등의 문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장별로는 우리 수출의 49%(’98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4대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EU 등 구미지역의 바이어들은 납기지연과 신제품 개발을, 일본 바이어들은 주로 제품 불량률 축소를, 중국 바이어들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적극적 마케팅전략 부재 등을 우리 수출업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손꼽고 있어 가격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수출시장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바이어들이 우리 상품의 수입시 가격요소를 최우선시 하는 이유는 우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신흥 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잠식과 IMF후 큰 폭의 원화절하를 경험한 바이어들로부터의 가격 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가 물량공세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인해

우리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저가제품으로 인식되었다는데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세기 문턱에서 우리 수출상품이 더 이상 바이어들로부터 가격 인하 압력에 시달리지 않고 당당히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이 체화된 수출상품의 고도화를 통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술표준원, MOF KS규격 개정 추진

계기용변압변류기(MOF)에 절연유 열화 진단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KS 규격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어 MOF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MOF의 KS규격 가운데 절연유 열화진단 장비 내장 의무자화를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9월 말 기술표준원에 개정을 요구해 오에따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술적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MOF 내부에 열화감지센서를 설치하고 기존의 단자함외에 절연유열화

감시장치용 단자함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KS개정안을 지난 9월말 기술표준원에 제안한 바 있다. MOF업계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절연유 열화 진단장비 설치보다는 재검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MOF는 변압기와 달리 2차측에 부하가 거의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절연유 열화진단 장치는 안전 제고에 실효성이 적다"고 전제. "전력량계가 검정연한이 7년이고 일본도 MOF의 검정연한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MOF의 검정연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F의 재검정제도는 지난 '87년 8월 폐지됐으며 그 이전에는 검정연한을 10년으로 규정해 설치이

후 매 10년마다 검정을 의무적으로 다시 받도록 했다.

이와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이 검토되고 있는 절연유열화 진단센서는 현재 한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절연유열화진단장비 내장은 정확하고 일상적인

진단이 가능해져 사고예방은 물론 수용가 설비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와관련 기술표준원 담당자는 “업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선불리 개정할 수 없다”며 “올연말쯤 전기안전공사, 업계, 한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